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종 미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도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미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방 현 식

2019년 1월 4일

방현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완료함

2019년 1월 4일

위 원 장 정 중 미



위 원 서 윤 경



위 원 황 빛 나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사진 목차.....	v
국문 초록.....	v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분석.....	7

II. 미술관이 지역의 가치향상에 미치는 영향..... 11

III. 제주도 문화예술탐구..... 17

1. 제주도의 문화예술 이해를 위한 지역성 탐구.....	17
1) 지역적 특성.....	17
2) 문화예술시설 유형 및 특징 분석.....	18
2. 제주도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관한 탐구.....	33
1) 동부지역 - 구좌읍.....	35



(1) 미술문화 소외 실태	35
2) 서부지역 - 한림읍	42
(1) 미술문화 소외 실태	42
IV.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	46
1. 국내	46
1)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례	46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 사례	50
2. 국외	57
1) ‘섬’의 미술문화 활성화 사례	57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 사례	72
V. 결론	78
1. 내용 요약 및 정리	78
2. 제언	80
【참고 문헌】	83
Abstract	87



<표 목차>

<표 1> 도시재생에 기여한 미술관 종합분석표	14
<표 2>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도와 만족도	15
<표 3> 제주도 내 국·공립 박물관 현황	21
<표 4> 제주도 내 사립 박물관 현황	23
<표 5> 제주도 내 공립 미술관 현황	26
<표 6> 제주도 내 사립 미술관 현황	28
<표 7> 제주도 내 공립 전시관(테마파크) 현황	29
<표 8> 제주도 내 사립 전시관(테마파크) 현황	31
<표 9> 순천만의 자연환경 구성 특징	47
<표 10> 프로젝트 주체별 목적	51
<표 11> 프로젝트 진행 과정	53
<표 12> 프로젝트 심사 기준	54
<표 13> 프로젝트 진행 과정	58
<표 14> 국제예술제 3회차 특징 비교	70
<표 15> 빌바오의 문화예술기관 및 축제의 특징	76



<그림 목차>

<그림 1> 도시재생에 기여한 미술관 종합분석	13
<그림 2> 제주도 내 국·공립 박물관 분포	22
<그림 3> 제주도 내 사립 박물관 분포	25
<그림 4> 제주도 내 공립 미술관 분포	27
<그림 5> 제주도 내 사립 미술관 분포	29
<그림 6> 제주도 내 공립 전시관(테마파크) 분포	30
<그림 7> 제주도 내 사립 전시관(테마파크) 분포	33
<그림 8> 제주도 4방위 구분	34
<그림 9> 프로젝트 주체의 상호교류	51
<그림 10>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포스터 및 Artwork Map	71



<사진 목차>

<사진 1> 월정리 해수욕장 - 상업적 공간.....	36
<사진 2>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주거형태.....	38
<사진 3> 구좌읍의 업사이클 공간.....	39
<사진 4> 구좌읍 일대의 자연경관.....	41
<사진 5> 한림읍의 업사이클 공간.....	43
<사진 6> 한림읍 일대의 자연경관.....	44
<사진 7> 한림 해안가 돌담의 형태.....	45
<사진 8>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순천만.....	49
<사진 9>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	56
<사진 10> 베네세하우스 외관 및 내부.....	60
<사진 11> 베네세하우스 내부.....	61
<사진 12> 지중미술관 조감도.....	62
<사진 13> 지중(지추) 정원.....	63
<사진 14> 카도야 외관 및 내부 작품.....	64
<사진 15> 미나미테라 정면 및 입구.....	65
<사진 16> 고오진자 정면 및 석실.....	66
<사진 17> 이시바시 안뜰 및 작품.....	67
<사진 18> 이우환미술관.....	68
<사진 19> 아이러브유 외관 및 내부.....	69
<사진 20>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75



국문 초록

제주도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미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방현식

미술교육전공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화는 개인부터 단체, 사회, 지역, 세계까지 광범하게 유기적으로 얽혀있으며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를 통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교감을 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여러 곳곳에서의 문화적 교류 및 소통은 현대의 문화 의식을 성숙하게 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게는 개인에서 넓게는 사회 이상의 주체에서 문화적 가치의 인식에서부터 성장이 시작되고, 성장의 기회는 어느 공간에서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예술기관으로 주로 미술관, 박물관, 테마파크, 갤러리 등이 있다.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은 문화적 주체로 서로 공생을 목적으로 반드시 함께 나아가는 존재이다. 두 주체의 대표적인 공생 지역인 제주도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며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제



주도는 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속적인 문화예술기관 설립과 각종 시설에서 프로젝트에 따른 단체,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발전과 재생에 큰 역할 및 기능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도시재생의 가치향상을 위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 도시재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일부는 문화적 소외를 자연스레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 소외지역에는 동부지역의 구좌읍과 서부지역의 한림읍이 있다. 두 지역은 뛰어난 자연미와 예술미를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는 세계적 명소이기에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공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상업적 공간의 발생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현장 조사와 선행연구에 의하면 두 곳은 상업적 공간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회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구좌읍과 한림읍의 문화예술기관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제주도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의 항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례, ‘섬’의 미술문화를 활용한 사례,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로 구성하여 소외지역의 미술문화 활성화를 다양한 측면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구좌읍과 한림읍의 독창적 자연미와 예술미를 상업적 공간과 문화예술이 상호작용하여 제주도를 찾은 많은 사람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자연스러운 문화적 향유를 통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문화예술 소외지역, 미술문화 활성화, 문화예술의 중요성, 문화적 향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서구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존중받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개별성의 존중은 본인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강화해줌으로써 주체성을 향상시켜준다. 시대의 변화는 ‘YOLO’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YOLO’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의 이니셜로 축약한 용어로서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여겨 즐기는 본인만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생활양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관광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현대의 제주도는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문화자원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제주도의 가치를 높혀가고 있다.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제주도의 모습을 각종 언론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절 상관없이 각자만의 계획 또는 무계획으로 여행을 떠나 관광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호불호의 이미지로 기억된다.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많은 세계인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는 제주도에 2주 동안 살기의 형태로 시



작하여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많게는 반년 살기 등 기간을 설정하여 단기 및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자 삶을 살면서 잠깐의 휴식과 재충전, 여유 등의 풍요로운 감정을 제공하는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치이다. 끊임없이 생산적 활동을 하는 현대인에게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휴식을 가져다주는 경우와 더불어, 때로는 회색빛으로 물들어진 건물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생각에 빠져보는 것도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관광을 오면 넓게는 관광명소, 맛집, 카페 위주로 계획한다. 먼저 관광명소에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만장굴 등 자연명소와 각종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뮤지엄 등 문화예술시설들이 있다. 문화예술시설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으나, 정확히는 테마파크 형태의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 명소 주변으로 자연스레 음식점, 카페들 역시 더욱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자연환경의 청정성과 고유의 문화 경험은 자연이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정호, 김원태, 윤용한(2013)는 도심 속 녹지 경관을 감상한 사람들의 기분 상태와 타액 내 α -아말라아제를 검사한 결과 긴장-불안, 우울, 피로, 혼란의 수치가 감소하고, 타액 내 α -아말라아제의 활성치 또한 낮아져 녹지 경관 감상이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하여 자연은 인간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연의 섬 제주도는 우리들의 감정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주도에는 자연의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명소와 맛집, 카페, 미술관 등 문화시설들이 있어 자연 속에서 색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경험한 결과는 관



광의 흥미를 제공하는 콘텐츠는 확실하게 증가하였지만, 비례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자연을 훼손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들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임재해(2000)는 상업주의적 발상과 경제 논리에 따라 발전된 산업으로 자연환경을 이용과 놀이산업 창출에 치우쳐 자연을 훼손하고 한정된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한 것을 알 수 있다.¹⁾ 이처럼 지금의 제주도는 문화예술산업의 성장을 위해 훼손이 아닌 조화의 방법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 문화예술시설들은 특정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어 주목받지 못한 지역은 자연스레 문화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김태일(2009)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문화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비교해 동부와 서부에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다.²⁾ 이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문화기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해당되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제주도를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예술의 미술관으로 봄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이 소외되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환경적 특징과 미술관이 조화를 이루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미술관이 연계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중에서 동부지역은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하며, 서부지역에는

1) 임재해(2000; 147,178)는 문화예술산업이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창출되려면 주민들의 문화 인식이 바뀌고 관광하는 주체들의 관광문화가 성숙되어야 하며, 인문학적 문화지식 확충과 창의적 문화생산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김태일(2009; 72~77)의 설명에 따르면 2009년 조사 기준으로 등록된 제주도 내의 미술관 현황은 6개(제주시 3개, 서귀포시 3개), 전시관으로 등록된 현황은 8개(제주시 3개, 서귀포시 5개)로 주요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이 동부지역보다 많이 있으나 미술관은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역시 열악하다. 나아가 위의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미술관에서 거시적인 공통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미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미술관에서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는 전시 관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주제의 전시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는 자연스러운 방향과 함께 연계되는 지역에 대해 시선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은 자연스레 소외당하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소외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미술관에서 시작되어 형성된 하나의 네트워크는 제주도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이 되고, 그것은 제주도의 예술문화 성장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가치창출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예술문화 성장을 위해 소외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시설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가올 미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시사점을 밝히고, 제주도의 문화예술시설을 조사하여 밀집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하여 원인을 탐색함과 동시에 소외지역의 문화예술시설 중 미술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예술시설 분포현황을 통해 밀집된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접근성 및 자연경관과 주변 시설을 이해하고, 소외지역의 위치를 파악하여 제주도민의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에 대한 의식과 해당



지역 일대의 자연경관 조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주도의 문화예술시설 중에서 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의 현재 진행되는 전시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집하여 제주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연경관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외 지역의 미술관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소외지역 이외의 지역들과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주도의 독자적인 지역 문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 문화 가치향상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적 자연환경 특성과 문화예술시설의 유형 및 분포에 따른 특징을 관련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제주도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내용분석(Document Analysis),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국외의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방법론으로 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와 소외지역의 미술관과 활성화된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성격을 갖추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삶의 형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 대한 현대인의 관광 형태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의 분포와 방향을 통해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예술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예술시설이 지역별 격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활성화되



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성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의 모습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여, 문화적 소외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 살아가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로 제주도가 가지는 자연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제주도의 전반적인 자연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고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예술시설의 유형과 위치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나아가 문화예술시설 안에서 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운영 방향과 제주도 예술문화 흐름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넷째, 문화예술 소외지역 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동부 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위 지역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조사한다. 가치 조사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지역적 의의,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소외지역 안에서 핫플³⁾을 조사하여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을 살펴보면서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의 목적과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사례를 정리하면서 당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4장에서는 섬 자체가 문화예술의 활성화된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섬 이외의 지역에서 자연적 요소와 예술문화가 조화가 활성화된 문화시설 및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소외지역이 갖는 자연적 가

3) 핫 플레이스(Hot Place)의 줄임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뜻한다.



치를 재발견하여 발전 방안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외지역의 미술관 발전 방안에 적용하여 구성하고,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미술관 안에서 자체적인 발전 방안과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지역의 미술관이 하나의 공통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소외지역의 문화예술시설이 소외 당하지 않고 발전하여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넓게는 제주도 전체의 문화예술 성장에 따른 가치향상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일곱째, 본 연구는 정보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소외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연의 조화로운 성장의 긍정적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고,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다.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 발전 방안을 실질적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의 미술관이 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다양한 지역 문화의 가치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현대사회의 흐름과 해당 지역의 성격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미술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 분석을 연구한 논문들(이소연, 2014; 김미량, 2013; 윤민희, 2009)이 있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처럼 그 외의 지역에서도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미술관·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송동근, 2012)가 있다.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문화예술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중에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미술관의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이진영, 2015)가 있다.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화의 작은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미술관이 우리 삶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과거의 연구 방향을 토대로 앞으로 미술관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유인도 482개, 무인도 2,876개 등 총 3,358개의 섬이 있고, 수많은 섬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섬 지역의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이순자, 2014)가 있고, 482개의 유인도 중 하나인 제주도의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의 발전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연구(고희송, 2010)가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의 섬 제주도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연구(강경호, 2017), 그리고 세계 평화의 제주 건설 및 유지에 정치적·경제적 풍요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평화의 섬 실천협의회 문화예술분과, 2009)가 있다.

김태일(2009)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밀집된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문화시설의 접근으로 말하여 올바른 배치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기반시설이 특정한 지역에 밀집되는 원인은 제주도는 관광지의 성격이 강하여 상업적 목적이 발생함과 동시에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자연경관이 있고, 그 영향으로 자연스레 제주도 내의 지역 간 문화



기반시설의 격차는 증가하여 문화적 소외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접근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거리가 멀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느 지역이든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김지혜(2015)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문화예술은 작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생겨 새로운 유형 관광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채워주기에 적합하며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 비아아트에서 진행하는 ‘아트페어’를 만들었으며, 그 이외의 세화리의 ‘벨롱장’, 서귀포시 법환동의 ‘소랑장’, 강정동의 ‘마르쉐’ 등이 있다. 이들은 상업적인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대표할만한 하나의 브랜드가 부족하다는 시사점을 정확하게 밝히었다. 더불어 백용성(2015)에 따르면 제주도 내의 크고 작은 다양한 공간들에서 각자만의 색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전시와 교육, 탐방, 행사 등 많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습이 다양한 이질성을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공간과 어울리며 공존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 역시 제주도에 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각종 정책 및 프로젝트들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과거에 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요소는 미흡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작고 크게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대체로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고 느낀 점은 먼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업체, 예술 단체에서 지속적인 연계와 자연의 가치 및 제주도의 문화예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주도를 연상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독자적 문화예술 가치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Ⅱ. 미술관이 지역의 가치향상에 미치는 영향

현대의 문화예술시설 역할과 기능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일화된 역할을 수행했던 공간이 아닌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은 특정계층만 누리는 공간이 아닌 어떠한 제약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공간은 지역의 가치와 더불어 주민들의 사고 및 인식을 향상시켜준다. 20세기 이전의 미술관은 소장품에 의존한 일방적인 전시형태였지만 1851년 런던의 <만국박람회>, <베니스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 독일의 카셀(Kassel)의 다양한 전시형태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공립미술관과 갤러리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일방적인 전시형태에서 공공을 위한 이익과 대중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상호소통적인 미술관으로 변화한다. 미술관은 전시만 관람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오픈 에어 뮤지엄(Open Air Museum)⁴⁾과 에코 뮤지엄(Eco-museum)⁵⁾과 같은 형태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가치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소연, 이명아(2013)는 사회학적 접근방법으로 미술관은 예술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형태를 형성하고 더욱 성장하는 개인의 삶에서

4) 오픈 에어 뮤지엄은 ‘야외 박물관’ 이라고도 번역되며 뮤지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교육, 보존 등을 비영리로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 역사,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 유형과 무형을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5) 에코 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생각하여 창작 및 활동하는 수단이며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자신의 흥미, 지식, 대처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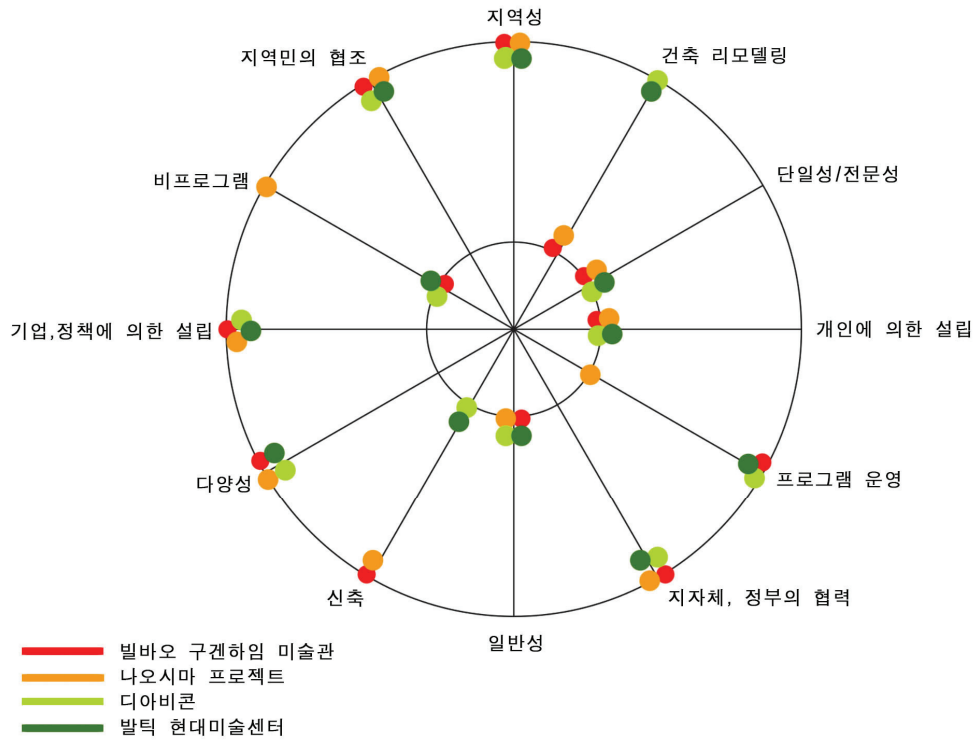


시작하여 지역, 도시,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예술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개발, 도시재생,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재생 등은 기존 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과 함께 행해야 한다. 이러한 쇄신을 위해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미술관을 설립한다. 나옴시마 프로젝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뒤셀도르프의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연흥 미술관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큰 역할을 했다. 이소연(2014)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옴시마 프로젝트, 디아비콘, 발틱 현대미술센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종합 분석하였고, 연구의 항목은 총 12개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그림 1>으로 12개의 항목 중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기업과 정책에 의한 설립, 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성, 다양성이 중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도시재생에 기여한 미술관 종합분석



출처: 이소연, 2014



<표 1> 도시재생에 기여한 미술관 종합분석표

분석지표 \ 미술관명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오시마 프로젝트	디아비콘	발틱 현대미술센터
지역성	○	○	○	○
건축 리모델링			○	○
프로그램 운영	○	○	○	○
지자체, 정부의 협력	○	○	○	○
신축	○	○		
다양성	○	○	○	○
기업, 정책에 의한 설립	○	○	○	○
비프로그램		○		
지역민의 협조	○	○	○	○

출처: 이소연, 2014

나아가 미술관이 지역의 가치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술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원 지역의 가치향상, 삶의 질 개선, 국가적 발전 등 작은 것에서부터 넓은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경호(2017)의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계층, 연령, 인종, 문화 등



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2> 문화예술의 섬 제주 정책을 통한 효과의 중요도와 만족도

구분	평균값		중요도-만족도	t값
	중요도	만족도		
공연예술시설의 숫자	4.00	2.72	1.28	10.396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문화예술행사의 빈도	3.75	2.61	1.13	10.389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전통사찰, 전통박물관 등	4.17	2.77	1.40	13.371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기사 및 홍보	4.21	2.63	1.58	13.312
대규모 박물관과 미술관 및 체육시설 확보	3.84	2.75	1.08	8.622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	4.56	2.49	2.07	19.077
문화예술단체의 숫자	3.71	2.60	1.10	9.847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자원 지원 정도	4.35	2.19	2.16	16.975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 수	4.14	2.17	1.97	14.323

출처: 강경호, 2017



<표 2>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4.56을 나타내고 있는 시민의 문화예술의 참여도를 높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중요성을 보이는 것은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 정도를 말하고 있다. 가장 낮은 중요성으로는 3.71을 나타내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숫자를 나타냈다. 또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는 중요도-만족도에서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기관의 중요성을 말해줌과 동시에 현재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Ⅲ. 제주도 문화예술탐구

1. 제주도의 문화예술 이해를 위한 지역성 탐구

1) 지역적 특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분출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으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경사는 3°~ 5°의 완만한 형태이며, 남쪽과 북쪽은 5°정도로 동쪽과 서쪽에 비해 약간 급한 경사의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완만한 지형적 구조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와 기생화산들에서 분출한 화산쇄설암 등의 지질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토양은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덮여 있다. 화산분출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1,849.02km²의 면적으로 서울 면적보다 대략 3배 이상 큰 형태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약 63만 명의 인구와 수많은 동·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의 동물은 한대성과 열대성 동물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으며, 식물은 한라산을 기점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있다. 먼저 동물은 포유류 77종, 조류 198종 등을 포함하여 양서류, 파충류는 각각 8종이며 곤충류는 873종, 거미류는 74종으로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 모든 곳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식물의 종류는 2,001종으로 백두산은 500여종, 지리산은 1,000여 종으로 제주도의 식물의 개체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동·식물에는 8종의 천연기념물과 한라산 일대의 모



든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동·식물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자연적 가치를 지닌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고유성을 지닌 지리적 환경과 과거의 탐라국 역사는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섬으로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어느 곳에서나 제주 바다의 천연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옛 선조들의 역사적 유적들 민속문화를 지니고 있다.

2) 문화예술시설 유형 및 특징 분석

제주도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연구하기 이전에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의 유형과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관해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의 테마파크들이 박물관과 미술관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시설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재해석하여 문화예술시설로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문화예술시설들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바지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념,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지는 개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문화예술 소외지역과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제9장 자문·협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제1장 총칙 안에서 제2조의 정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둘째.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셋째.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정의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를 언급함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이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은 현대사회의 문화예술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 삶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다.

강창숙(2010)이 정리한 박물관의 주체별 설립 시기를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은 1967년과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공립박물관은 1984년에 시작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고, 사립박물관의 경우 1987년에 설립이 시작되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 미술관과 전시관은 1964년에 시작하여 1996년과 2002년에 활발하게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과 박물관은 대체로 2002년부터 본격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2년의 한·일 월드컵 개최로 제주월드컵경기장이 개설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제주도를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시설들이 생기게 되었다.

(1) 국·공립 박물관 현황 및 특징

제주도의 국·공립 박물관은 총 10개로 국립박물관 1개, 공립박물관 9개가 개설되어 있다.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서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말하고,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구분한다. 제주도의 국·공립 박물관은 10개 중 7개가 제주시에 있으며 동부지역에 2개, 서귀포시에 1개가 있는 것을 <표 3>과 <그림 2>으로 정리하였고, 제주도 내 제주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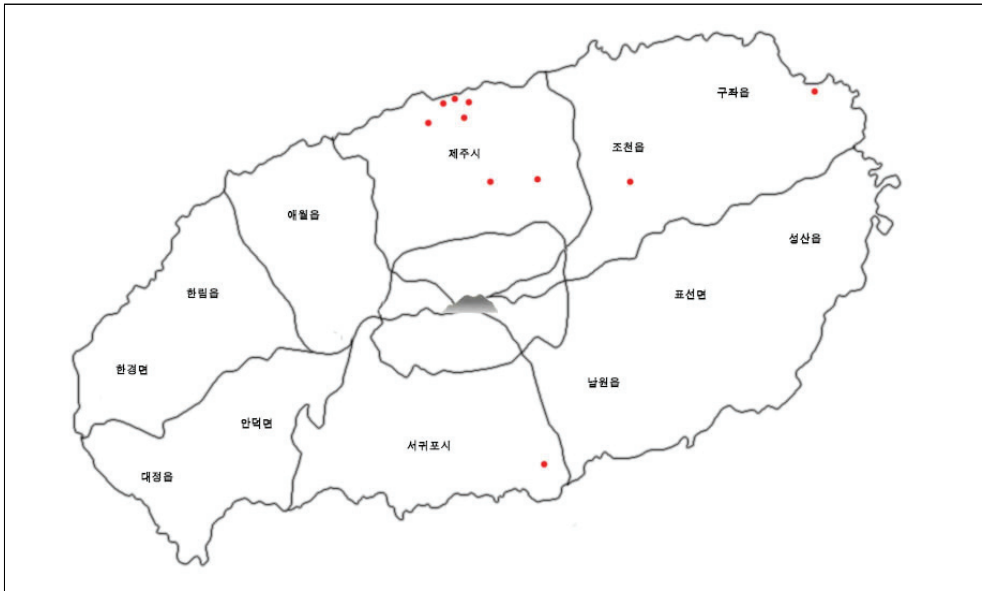
<표 3> 제주도 내 국·공립 박물관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1	국립제주 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부지 55,579 건평9,287	20,389
2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부지 31,515 연면적 6,473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37,581
3	제주교육 박물관	제주시 오복 4길 25	부지 5,809 연면적 3,741	교육자료 23,748
4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부지 1,444.740 연면적 477	민속자료 5,521
5	감굴 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부지 27,243 연면적 4,786	민구류,감굴류 등 254점
6	제주 돌 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부지 3,269,731 연면적13,901	화산 암 등 25,920
7	해녀 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 박물관길 26	부지 86,556 연면적 4,002	해녀 관련 3,579점
8	제주 4·3 평화기념관	제주시 명림로 430	부지 11,455 전시실3실 2,025	문서, 유품 등21,848점
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 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 8길 12	부지 14,134.30 전시실3실 711.7	민속자료 등 90점
10	김만덕 기념관	제주시 산지로7	부지 1,982 연면적 2,902 전시실 1,008 수장고 50	고서·민구류, 근현대사진 등106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2> 제주도 내 국·공립 박물관 분포



(2) 사립 박물관의 현황과 특징

제주도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립박물관은 총 19개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의해 설립되어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사립박물관은 제주도에 관련된 주제를 비롯하여 제주와 다양한 장르의 결합, 제주도와 관련성이 높지는 않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공간들로 제주도라고 하여 제주도의 특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개인의 선호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사립박물관은 <그림 3>과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는 동부와 서부지역에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제주도 내 사립 박물관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1	신영 영화 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부지 4,286 연면적 2,803	장비,스틸원본 등 1,580
2	제주 민속촌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부지 156,503 연면적 6,838	고서적, 민속 자료 등 8,187
3	제주 평화 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부지 9,038 연면적 1,929	사진,군대용품 311점
4	아프리카 박물관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부지 8,246 연면적 3,741	공예품 및 사진자료 450점
5	제주 건강과 성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부지 25,564 연면적 1,076	도자기류 등 120점
6	파파월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2157	부지 27,466 전시실4실 1,363	나비 등 118종1,530점
7	보석 앤 화석 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11	부지 8,026 실내 880, 야외 1,200	국내외 화석 1,882점
8	세계 자동차 제주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부지 29,845 전시실 5실 2,149	세계자동차 관련 65점
9	테마 공원 선녀와 나무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부지 29,134 전시실 15실 3,365	민속유물 208점
10	메이즈 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부지 37,248 전시실 1실 211.2	퍼즐 등 110점
11	다희 티 뮤지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부지 3,660 전시실 315.57	다기 등 34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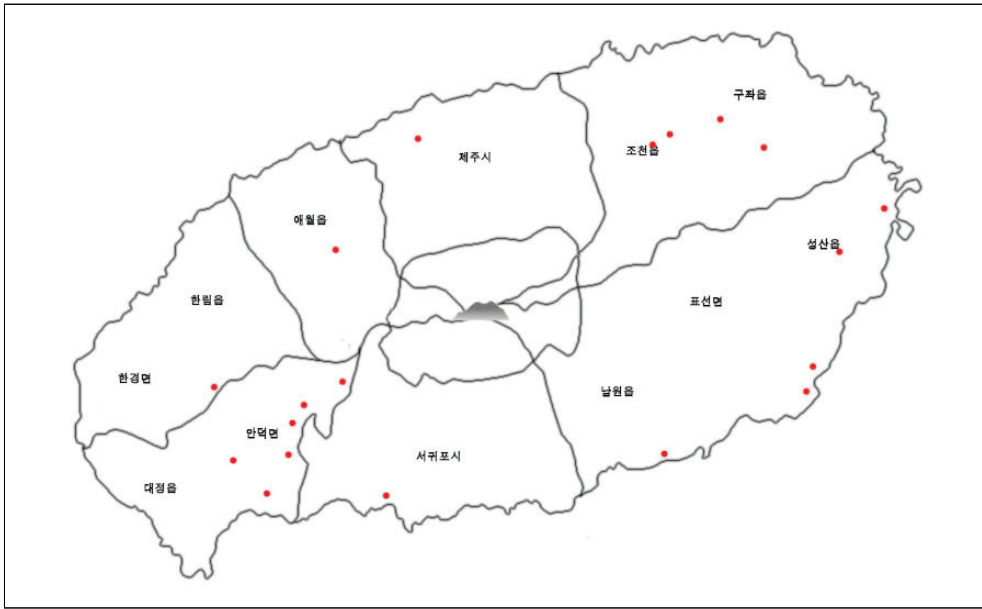


12	본태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부지 7,603 전시실 7실622 전시실 추가 2실 263.5	고가구, 공예 품,미술품등51 9점
13	넥슨 컴퓨터 박물관	제주시 1100로 3198-8	부지 9,799 연면적 2,471 전시실 4실 858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 임기 및 타이틀 등 896점
14	제주 항공 우주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부지 111,840 연면적 30,166 전시실 4실 11,069	항공천문 우주분야 266 종574점
15	한울랜드 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부지 99,800 전시실 1,691.41 수장고 39.08	화석자료 190점
16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부지 3,823 연면적 3,448.08 전시실 2,185 수장고 50.6	헬로키티 관련 160점
17	세계 오지 민속 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474	부지 29,995 연면적 1,465.67 전시실 956.25 수장고 47.5	세계민속작품 100점
18	제주 커피 박물관 바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168 번길 89-17	부지 72,545 전시실 287	커피관련 369점
19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88	부지 25,960 연면적 전시실 2,314 수장고 92	레오나르도 다빈치 관련 복제품 및 라이선스 작품 110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3> 제주도 내 사립 박물관 분포



(3) 공립 미술관의 현황과 특징

제주도 내의 공립미술관은 제주시에 현대 미술관일 비롯하여 서부지역에 3 곳, 서귀포시에 3곳이 있으며, 동부지역의 공립미술관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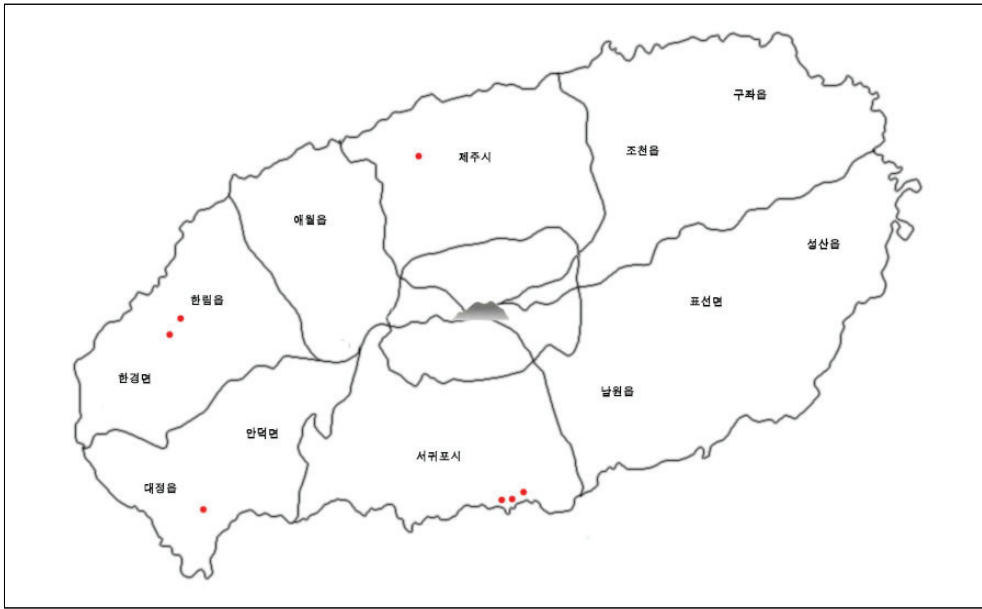
<표 5> 제주도 내 공립 미술관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1	기당 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부지 13,863 연면적 960	한국화, 서양화 644 점
2	이중섭 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부지 5,700 연면적 589	미술품 140점
3	제주 현대 미술관	제주시 한경면저지 14길 35	부지 99,383 연면적 2,083	미술품 324점
4	소암 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부지 1,903 전시실 3실 1,523	서예 415점
5	제주 도립 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부지 38,744 전시실 4실 2,299	미술품 396점
6	제주 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추사로 44	부지 2,471 전시실 4실 496.4	고서화 105점
7	제주 도립 김창열 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부지 4,990 연면적 1,587 전시실 3실 434	미술작품 220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4> 제주도 내 공립 미술관 분포



(4) 사립 미술관의 현황과 특징

제주도 내의 사립미술관은 제주도 내에 전체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일부는 미술관 성격보다는 테마파크의 성격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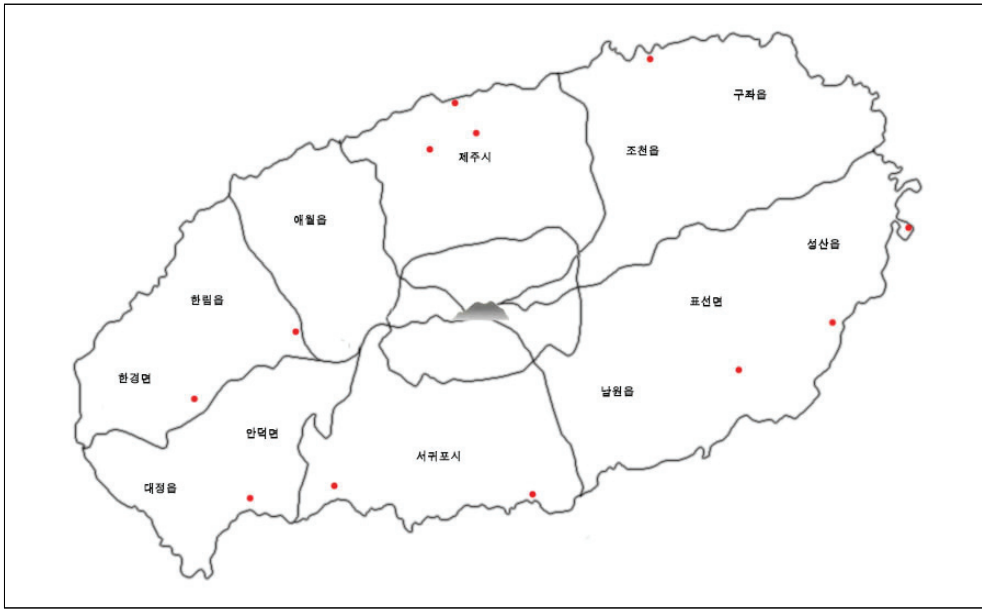
<표 6> 제주도 내 사립 미술관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m²)	소장자료
1	김영갑 갤러리 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부지 8,651 연면적 904	사진, 필름, 조각품 등 264점
2	자연사랑 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	부지 13,815 연면적 1,600	사진자료 등
3	러브랜드 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2	부지 29,950 연면적 1,356	조각품 등
4	돌하르방 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부지 14,876 야외전시 8,264	돌하르방 156점
5	제주 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1836	부지 412,286 야외전시 214,800	조각품등 300점
6	성안 미술관	제주시 중앙로470	부지 9,900 전시실 3실 252	근현대 미술품 630점
7	제주 유리의 성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부지 35,978 전시실 991 실외전시 14,535	유리조형 작품 118점
8	박물관은 살아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색달동)	부지 29,850 전시실 3관 3017.8 연면적 4,608	트릭아트 작품 등 148점
9	그리스 신화 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부지 58,950 전시실 4관 2,266.9	대리석 조각 및 회화 등 120점
10	왈중 미술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길 30	부지 2,481 연면적 398 전시실 2실 298	미술작품 294점
11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시 탐동로 14	부지 2,493 연면적 5,715	미술작품 100점
12	유민 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1	부지 16,677 연면적 1,384 전시실8실 1,184	미술작품 121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5> 제주도 내 사립 미술관 분포



(5) 공립 전시관의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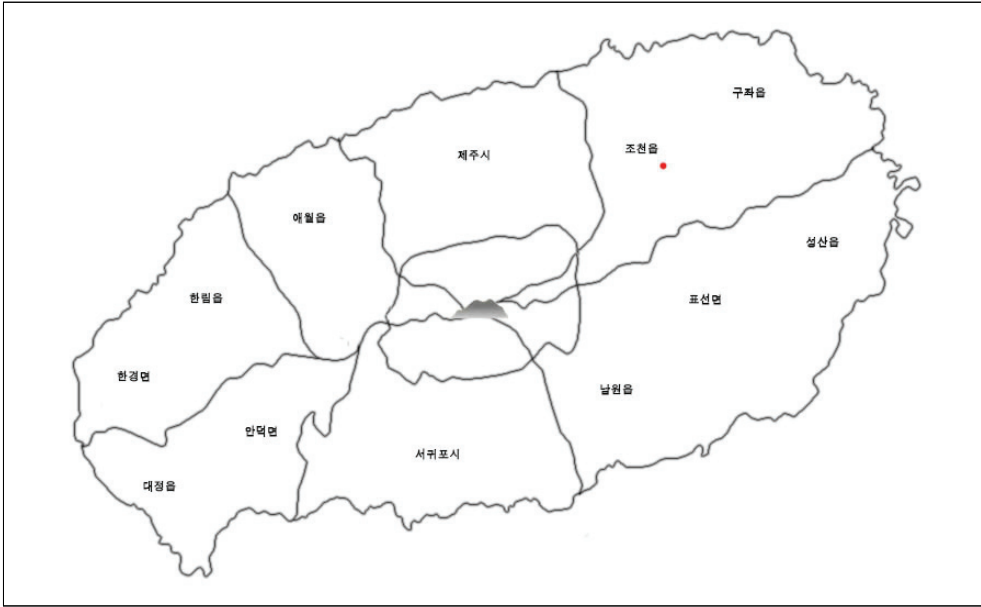
<표 7> 제주도 내 공립 전시관(테마파크)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m²)	소장자료
1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 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부지 39,789 전시실 1,514 수장고 246	화석 등 113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6> 제주도 내 공립 전시관(테마파크) 분포



(6) 사립 전시관의 현황과 특징

사립 전시관은 제주도 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부 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의 전시관이 부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관의 주제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공간과 더불어 특정 주제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8> 제주도 내 사립 전시관(테마파크)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
1	제주 테디베어 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부지 13,555 연면적 4,030	곰인형 1,356
2	설록차 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15	부지 8,100 연면적 1,564	토기류,자기류 150점
3	세계 미니어처 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부지 47,663 연면적 4,786	조형물 등 63점
4	소인국 테마파크 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629	부지 49,644 연면적 1,127	조형물 등 72점
5	제주 공룡랜드 전시관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1	부지 90,571 연면적 1,103.73	화석등 210점
6	닥종이 인형 전시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부지 1,305.73 연면적 864.32	공예품등 167점
7	도깨비 공원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488	부지 27,037 야외전시 17,392	조형물 927점
8	조안베어 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로 113	부지 1,716 전시실 3실 22 1	수작업 곰인형119점
9	석부작 박물관 공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부지 18,469 야외전시 12,775	석부작 등 500점
10	테지움 사파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부지 2,510 전시실 1,394.16	곰인형 등 124점
11	제주 용기 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 254번길 3-1	부지 4975 전시실 2실 218	용기 154종 30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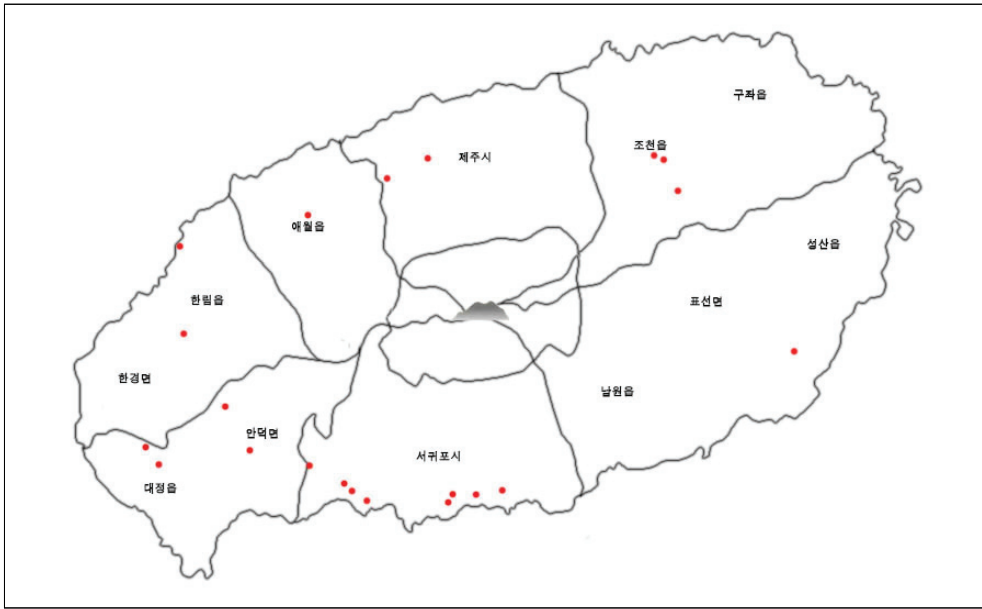


12	초콜릿 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44	부지 4,993 전시실 2실 446.16	토기류 등 120점
13	제주 유리 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전시실 1실 313.8	유리공예 97점
14	믿거나 말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부지 7,490 전시실 2실 1,441	조각품 등 448점
15	세계 조가비 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부지 1,243.00 전시실 3실 225	조가비 등 312점
16	SOS 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부지 845.84 전시실 4관 826	재난관련 서적 등 241점
17	제주 아이스 뮤지엄 종합 전시관	제주시 은수길 69	부지 9,994 전시실 2관 2,318.72	얼음조각 등 114점
18	탐라 신화 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부지 9,950 전시실 3실 2,706.17	기메 등 73점
19	(주)타임파크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부지 36,574 연면적 2,813 전시실 2실 2,734	3D아트미술품 75점
20	이랜드 뮤지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부지 4,878 전시실 3실 170.61 수장고 41.58	영화소품 207점
21	세계 술 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31	부지 3,033 전시실 630 수장고 23	술 관련 물품 189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7> 제주도 내 사립 전시관(테마파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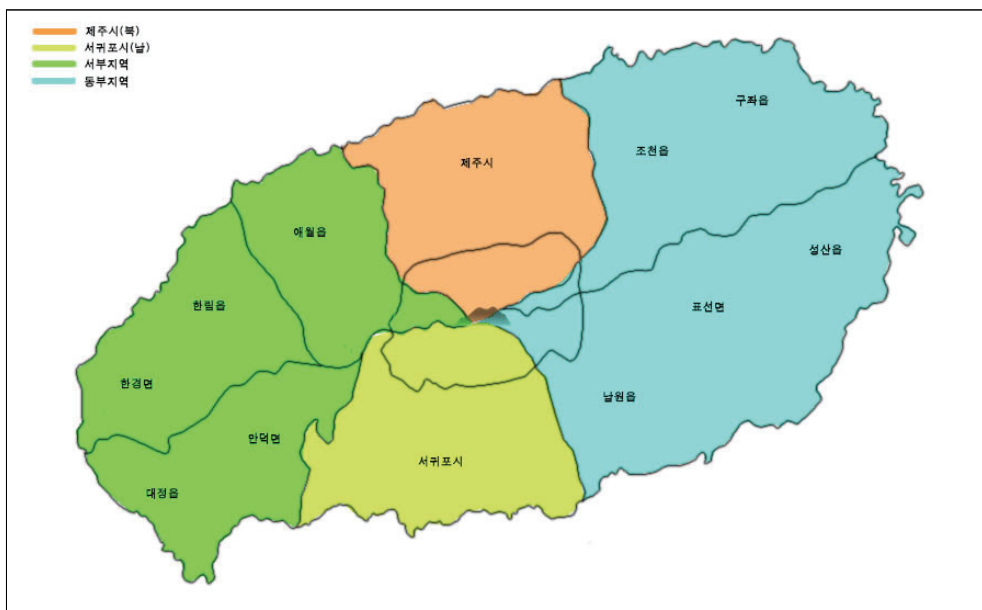
2. 제주도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관한 탐구

제주도는 넓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동, 면, 읍으로 세분화되어 행정 구분이 된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구분을 <그림 8>과 같이 4방위로 나눠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시설이 발전된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주도 내의 국·공립,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테마파크 등의 현황 및 분포를 통해 동부지역의 구좌읍과 서부지역의 한림읍에 문화예술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좌읍과 한림읍



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바다의 절경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이다. 많은 수요의 영향으로 상업이 급증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열악해지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이 되어가고 있어 구좌읍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8> 제주도 4방위 구분



1) 동부지역 - 구좌읍

(1) 미술문화 소외 실태

제주도의 동부지역은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으로 행정적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구좌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더불어 동부지역 안에 서도 미술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 및 문화예술시설이 미흡하다. 구좌읍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제주도의 중심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그 영향으로 해안가 주변에는 다양한 카페, 음식점, 펜션 등 상업적 공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금의 제주도는 해안가에서 카페를 포함한 상업적 목적을 갖은 공간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미술관과 더불어 문화예술시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안가 근처를 비롯해 산간지역 역시 같은 상황이다.

구좌읍의 해안가에 많은 상권이 들어선 것은 그만큼 해안가가 아름다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월정리, 평대리, 세화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바다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연인, 가족, 친구 등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명소이다. 해안가 일대에는 미술관은 없으며 해녀박물관 1개가 구좌읍 해안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1>은 구좌읍의 월정리 해수욕장으로 상업적 공간이 해안선을 따라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다. 구좌읍의 해안가는 성수기가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니만큼 상업적 공간이 필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제주만의 미술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사진 1> 월정리 해수욕장 - 상업적 공간



해안가를 벗어나 산간지역으로 올라가면 사뭇 다른 제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산간지역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돌담과 농경지, 공터, 들판들이 많아진다. 산간지역의 자연들은 정돈된 해안가의 모습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정돈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산과 들, 돌담⁶⁾의 조화는 제주도만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구좌읍 도민들의 거주지 형태<사진 2>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현대 기술에 의해 포장된 도로 양측에 자연스러운 제주 돌담과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집의 모습은 색다른 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옛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이 생기고 있다. 구좌읍에서도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공간을 특정한 목적에 의해 리모델링하여 개인 거주지, 숙박형태, 창작 공간 등으로 다양한 업사이클⁷⁾ 공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화예술시설은 구좌읍 마을 안에는 찾을 수 없었다.

6) 강정효(2013: 103~111)에 따르면 제주 돌담은 가축의 방목에 대한 피해방지과 더불어 강한 제주바람을 이겨내어 농작물을 보호하고 생활의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까지 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7) 업사이클(Upcycle)은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은 대상을 예술성, 심미성, 기능성을 더해 고부가가치 대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진 2>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주거형태



<사진 3> 구좌읍의 업사이클 공간



구좌읍 마을에서 산간지역 일대에 있는 두 개의 문화예술시설은 메이즈 뮤지엄과 한울랜드 뮤지엄으로써 메이즈 뮤지엄은 인간의 삶을 미로로 표현하여 미로를 체험하는 테마파크와 한울랜드 뮤지엄은 광물, 화석 박물관과 세계 각국의 연과 우리나라의 전통 연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한울랜드와 메이즈 뮤지엄은 구좌읍 마을에서 벗어나 산간지역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국립, 공립, 사립의 문화예술시설이 총 3개로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시설의 중심지에 비해 접근성이 편리하지는 않지만 예전과 달리 최근부터는 목적지의 접근성이 어렵더라도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전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은 후 일부러 찾아가는 자세가 증가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미술문화를 쉽게 경험하지만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놓기보다는 전시 성질과 홍보, 전시장의 주변 관광지 등의 환경을 크게 고려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예술시설들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밀집된 곳에 함께 분포하고 있어 구좌읍의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문화적 소외를 받고 있다.

구좌읍에는 해안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의 많은 오름은 <사진 4>과 같은 모습으로 제주도의 드넓은 대지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연상하면 푸른빛 바다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바다 못지않게 제주의 오름⁸⁾에서도 색다른 제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오름 정상에 올라가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을 제공해준다. 김상범, 노재현(2008)의 제주도의 오름에 대한 내국인, 외국인 경관선호도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높은 선호도 수치를 보였으며 내국인 중 비제주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관선호도 수치에 따른 높은 순서는 외국인, 제주인, 비제주인 순서이며 인위적인 조작 형태 없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오름을 더욱 성장시키고 세계화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오름은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로 제주도에는 현재 368개의 오름들이 존재하고 형태와 크기 또한 다양하다. 오름은 말굽형, 원추형, 원형, 복합형 등의 형태가 있고, 전체 오름의 43%는 서귀포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4> 구좌읍 일대의 자연경관



2) 서부지역 - 한림읍

(1) 미술문화 소외 실태

제주도의 서부지역은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으로 행정적 구분되어 있다. 5개의 지역 중 한림읍에는 김창열 미술관만 있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하고 해안가 일대의 상업적 공간은 동부지역 구좌읍의 상업적 공간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림읍의 상업적 공간은 <사진 5>와 같은 형태로 공간 수는 적으나 구좌읍의 공간형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현무암으로 지어진 공간과 기존의 건물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낸 공간,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 등 특별하고 독창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은 상업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업적 공간은 주로 카페와 음식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림읍에는 한림공원과 해수욕장, 테마파크,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과 도민들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미술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이곳에는 한림항과 한림시장, 공장들이 <사진 6>과 같은 형태로 도민들의 생산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성격은 구좌읍의 성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구좌읍은 도민의 활동에 비해 관광객의 활동이 많은 편이지만 한림읍은 반대로 도민의 활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곳의 주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문화 경험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러움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사진 5> 한림읍의 업사이클 공간



<사진 6> 한림읍 일대의 자연경관



한림 해안가의 돌담 형태는 해안가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의 상징인 현무암으로 쌓은 돌담, 거석을 부분적으로 놓은 돌담, 일반적인 담의 형태에 벽화를 그린 돌담의 모습은 <사진 7>과 같은 형태로 돌담에 그려진 벽화는 제주도와 걸맞은 해녀, 바다의 모습, 아이들 등과 같이 제주의 상징성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그려졌다. 또한 제주의 돌담은 미적 기능과 안전 기능이 있어 시각적 효과와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7> 한림 해안가 돌담의 형태



IV.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

1. 국내

1)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례

(1) 여수 순천만 생태관광지

① 순천만 특징

여수의 순천만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 온전한 연안 습지로 대한민국의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한 드넓은 해수면이다. 길게 뻗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둘러싸인 항아리 모양의 만이다. 간조시에는 12km²에 달하는 갯벌의 영역이 드러난다. 전체 갯벌의 면적은 22.6km²로 순천의 동천과 이사천의 합류 지점으로부터 순천만의 갯벌 앞부분까지 총면적 5.4km²의 거대한 갈대군락이 형성되어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겨울에는 흑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보호되고 있는 철새들이 찾는 장소이다. 철새들과 더불어 농게, 칠게, 짚뽕어 등과 같은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습지이다. 순천만의 자연환경은 크게 5개로 갯벌, 염생습지, 식생, 갈대군락, 구하도로 <표 9>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각종 자연학습 자료들과 영상물을 갖춘 생태전시관과 갈대숲 탐방로, 용산전망대, 담수습지, 갈대정자 등 사계절의 순천만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순천만의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표 9> 순천만의 자연환경 구성 특징

구분	특징
갯벌	-하천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양물질이 공급되며, 수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보전가치가 월등히 뛰어나고 생산력이 왕성한 습지로 자연정화기능과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심미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염생습지	-빨층이 깊고 분해성 미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철새들에게 많은 양의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다. -유기영양분이 많아 가장 질 좋은 습지로 평가받는다.
식생	-총 36과 92속 116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갈대군락	-30만 평의 갈대밭이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성 또한 뛰어나다. -갈대군락은 미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정화 기능이 뛰어나 하수 종말 처리장의 역할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구하도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취수나 배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순천만습지

② 순천만의 변천사

순천만은 3가지 측면으로 변화를 이루어 세계적인 생태 습지로 자리매김하였다. 3가지 측면 중 첫째는 기수지역 형성으로 해수면의 높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금의 한반도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입된 토사와 유기물 등이 바닷물의 조수작용으로 인하여 퇴적하여 넓은 갯벌이 형성되었다. 순천만의 갯벌은 강변이 바닥 부분에는 모래로 된 퇴적층이 있지만, 대부분은 니질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해안선의 변화로 조석, 파랑, 기압 등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순천만의 입구 부근은 여자만이라 부르는데, 고흥군에 속하는 여자가도가 순천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이 순천만 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두 개의 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 번째는 월동조류의 변화로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 특정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1999년에는 19종의 5,210개체에서 2002년에는 34종으로 15,746개체로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순천만은 자연의 순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생태 습지로 기계문명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원상태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순천만의 의의

생태 관광은 현대 문명 사회에 더욱 중요한 관광 요소로 세계적으로 꾸준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생태 관광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지역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지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 관광은 관광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욱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생태 관광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태학적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둘째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심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개발로 인한 기존의 자연경관이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높은 파급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지역 주민의 의지가 강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보존에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순천만은 위의 네 가지 조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순천만의 자연경관은 자연미와 예술미를 고루 지니고 있어 심미적 특성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또한 순천만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재 자연환경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으로, 생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물리적 개발하여 최소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은 인간과 자연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으로 갈대밭 휴양림, 산책로, 공원 등을 통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더욱 집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갯벌체험과 같은 생태 경험 체험이 있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다. 이정록(2000)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순천만은 무조건적으로 생태환경 보존이 전제 조건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곳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순천만의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순천만의 생태 관광지의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8>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순천만



출처: 순천만습지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 사례

법률연구회(2017)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는 세 가지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세 번째로는 주민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사업을 뜻한다.

(1)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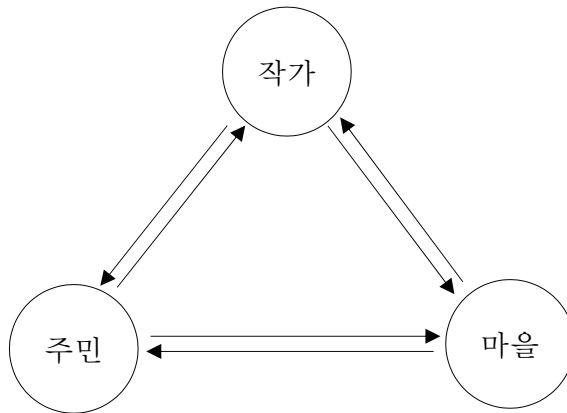
‘2010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공공예술 사업으로 2009년에 최초로 개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최초의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 성장, 마을재생,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교육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초, 중, 고등학교의 미술 교과서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단행본 「공공미술, 마을이 미술이다」 출간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사후 작품관리를 통해 공공미술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지역 문화의 문화예술 활성화의 3개의 주체는 <그림 9>에서처럼 작가와 주민, 마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긍정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프로젝트를 통한 목적은 <표 10>과 같고, 이는 2010년의 프로젝트뿐만 아니



라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마을미술프로젝트는 3개의 주체에게 큰 긍정적 파급 효과를 주어 전국의 다양한 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림 9> 프로젝트 주체의 상호교류



<표 10> 프로젝트 주체별 목적

구분	목적
작가	▪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공간, 기회 제공 ▪ 지역의 공공미술 작가 육성
주민	▪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예술 향유 ▪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술작품 참여 기회 제공
마을	▪ 해당 지역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브랜드화하여 특별하고 참신한 시스템 개발 ▪ 미술을 통해 지역 문화재생 및 예술문화 활성화의 대안 제시 ▪ 대규모 예술마을 조성과 일상적인 공간을 예술과 융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제시



② 프로젝트 진행 과정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17단계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미술작가로만 국한하지 않고 디자인, 건축, 평론, 인문학, 언론, 문화 행정, 시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정 또한 프로젝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 국가공인기관부터 전문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이다. 심사위원은 각자가 기획안을 검토하고 심사규정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이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작품 심사는 지역적 특성과 작품성, 장소의 적합성, 수혜성, 지자체의 의지 및 재원확보, 작품의 보존 등을 우선시하여 선정된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작품의 테마와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스토리텔링 하여 문화콘텐츠를 생성해 예술로 융합시키는 것이 요점이다. 프로젝트의 적합한 장소로는 공공장소, 문화예술 소외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되었을 시 파급 효과가 큰 곳, 지자체의 의지와 재원확보, 추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작품이 설치되어 향후 영구성 및 보존성의 기능 또한 크게 반영되어 선정되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표 12>와 같다.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공예술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해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작품의 재료에 대해 확실한 연구와 평가를 하여 미연의 방지를 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후 작품이 설치되기 이전에 당선된 팀과 추진위원회는 집중 샷렛⁹⁾을 거쳐 작품을 제작하며, 샷렛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에 반영한다. 샤렛 과정을 통해 작가들은 작품제작에 몰두하고, 추진위원회는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작가와 주민 간의 긍정적인 협력 체계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다.

<표 11> 프로젝트 진행 과정

단계	내용
1	공고
2	사업설명회
3	공모접수
4	심사(서류, 장소, PPT 심사)
5	샤렛(제안서 보완, 수정)
6	가격 적정성 심의
7	최종 실행안 수립
8	협약체결
9	사업실행
10	점검(중간점검, 최종점검)
11	작품설치 완료
12	평가
13	실적 보고서 제출(결과, 정산)
14	자료집 발간
15	아트투어
16	성과보고 세미나
17	사후관리(향후 2년)

9) 샤렛은 워크숍, 보완, 수정, 의견 수렴을 의미한다.



<표 12> 프로젝트 심사 기준

기준	세부 내용
장소성	-사적 용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한 곳 -지역의 특성(역사, 지리, 문화, 생태 등)을 반영한 작품 -지역의 다른 공간과 결합하여 파급 효과가 큰 장소
작품성	-공공미술의 실험적 모델 개척 여부 -작품의 참신성 -새로운 개념의 공간창출이 가능한 작품 및 프로그램
지자체 (의지 및 재원 안정성 등)	-사후관리 계획 -주민 홍보 방안 -재원확보 노력 및 안정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정도 및 의지
협업성 및 수혜성	-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시스템 구축 여부 -이상 속 문화예술 향유가 필요한 계층이 거주하는 문화예술 소외지역 -다양한 분야의 협조 관계
보존성 및 관리성	-설치 후 안전사고 위험 여부 -작품의 보존성과 관리방안 -작품의 향후 활용방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③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의 공공 미술가 발굴, 창작의 기회 제공,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활성화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작가, 지역 주민들



모두가 지속적인 소통하여 많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유행처럼 번졌으나, 공공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인건비의 어려움, 희망근로자 또는 대학생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숙련도가 높은 작가들의 예술성을 선보임으로써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함께 작품 및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화시켜주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귀속감을 결속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하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도시재생과 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미술은 지역의 재생,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세계적 변화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평범한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의 충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와 개인주의가 높아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사람들 간 인정의 교감을 마련해준다.



<사진 9>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



제주시 - 독짓골벽화, 고순철, 양지영



강원도 태백 - 꿈을 캐는 아이들, 정혜경, 정주애



경기도 김포 - 삼식이, 정선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2. 국외

1) ‘섬’의 미술문화 활성화 사례

(1) 일본 나오시마 섬

①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특징 및 진행 과정

나오시마 섬은 일본의 가가와현 가가와 군에 위치하고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인 예술의 섬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나오시마는 베네세 재단의 지원과 유명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업폐기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던 섬을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이룬 ‘예술의 섬’으로 변화시킨 예술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나오시마 섬은 7.8km²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약 4천 명의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섬의 북쪽에는 금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쓰비시 머티리얼 금 제련소로 공업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어린이 국제캠프장이 있었던 자리로 현재는 관광 산업에 이바지하여 중부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1987년부터 정확한 계획으로 산업폐기물이 가득찬 섬을 예술과 접목시켜 최초로 1987년에 ‘나오시마 국제캠프장’을 개장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은 <표 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프로젝트 진행 과정

년도	특징
1987년	베네세 그룹의 나오시마 섬의 토지 절반을 매입
1989년	‘나오시마 국제 캠프장’ 개장
1991년	‘나오시마 문화촌’ 설립
1992년	안도 다다오에 의해 ‘베네세하우스’ 완공
1995년	‘베네세하우스 오벌(Ovel)’ 완공
1998년	혼무라 지구 중심으로 ‘이에(家)프로젝트’ 시작
2001년	‘스탠다드 전’ 개최
2004년	‘지추미술관’ 완공 및 후쿠타케 나오시마 미술관 재단 설립
2006년	베네세하우스의 ‘비치(Beach)’, ‘파크(Park)’동 완공 ‘스탠다드 전2’ 개최
2009년	이에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이러브유’ 완공
2010년	‘이우환미술관’ 개관, 이누지마 ‘집 프로젝트’ 시작 제1회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개최
2012년	후쿠타케 재단으로 통합
2013년	안도 다다오 미술관 개관 제2회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개최
2016년	제3회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개최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8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자연의 원상태를 보존하면서 현대 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목시켜 2008년에는 세계적인 여행잡지 ‘The Traveler’에서 ‘세계에서 가봐야 할 7곳’에 선정되었다. 나오시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로는 베네세하우스, 지추(지중)미술관, 이에프로젝트, 이우환미술관, 아이러브유(I♥湯)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매년 새롭게 시작하여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대표적인 문화융합의 섬이다.

② 베네세하우스

1992년에 오픈한 베네세하우스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호텔과 미술관의 융합적 공간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¹⁰⁾가 설계를 맡았으며 미술관 1개, 오벌(Oval), 파크(Park), 비치(Beach)의 명칭으로 지어진 숙박 목적의 공간까지 진행되었다.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은 작품구입, 전시 관람에 이어서 작가를 초청하여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그에 적합한 작품제작을 시도해왔다. 이렇게 진행된 작품들은 기존의 전시와 색다르게 호텔 내부와 외부 곳곳에 전시하였으며, 내부의 전시로 인해 마치 미술관에서 숙박하는 감성을 자극하고 외부의 경우에는 예술작품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윤희향(2016)은 미술관과 작품은 장소성에 시초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장소성 안에서 우선적인 요소는 자연 요소와 건물의 조형요소 관계로 구성을 두었고, 하

10) 안도 다다오는 일본의 건축가로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9살 때부터는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으며 20세에는 건축을 익힘으로써 미켈란젤로, 르고르뷔제, 알바 알토, 루이스 칸 등의 작품과 다양한 고전 건축들을 직접 발로 뛰어가 보고 느끼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나의 미술관이기보다는 나오시마라는 섬의 역사, 문화, 전통,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특정형 공간이라고 하였다.

베네세하우스 미술관의 전시하는 현대 미술 작가에는 브루스 나우먼, 야나스 쿠넬리스, 리처드 롱, 야스다 칸, 스다 요시히로, 제니퍼 바틀렛, 스기모토 히로시 등의 작품들이 주변의 자연과 건축의 공간과 함께 전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작품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작품제작 전 우선적으로 전시 장소를 살펴보고 전시함으로써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극대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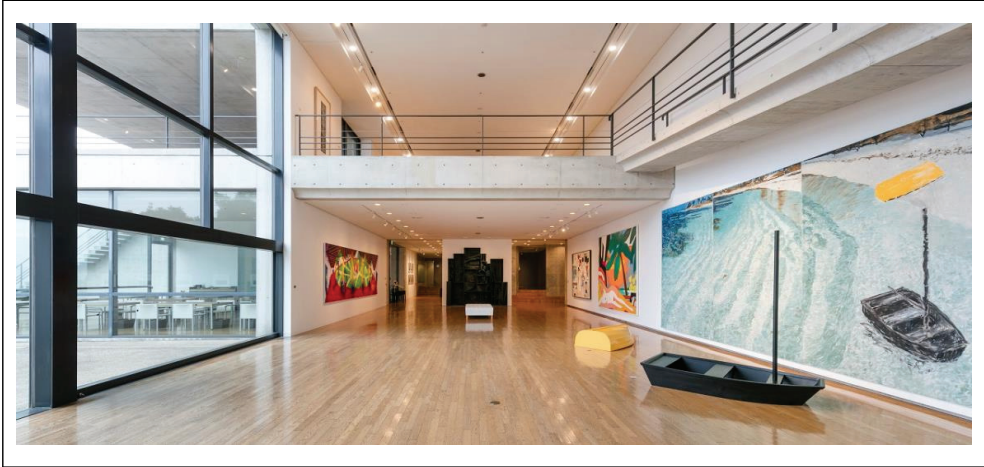
<사진 10> 베네세하우스 외관 및 내부

	
베네세하우스 외관 - 산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갤러리	내부 - 오벌(Ovel), 뮤지엄 위에 있는 숙박 전용 공간

출처: 단행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



<사진 11> 베네세하우스 내부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③ 지중미술관(Chichu Are Museum)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두 번째로 주변의 자연 요소 그대로를 반영한 건축의 형태는 마치 지하 병커와 같은 모습으로 지면 아래에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다. 지중미술관 역시 안도 다다오에 의해 설계가 되어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절제되고 명료하게 보여준다. 특히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빛과의 조화를 극대화 시켰으며 산등성이에 위치하여 능선의 곡선미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며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내부는 흰색의 색으로 설계한 미술관이다. 자연을 변형시킨 모습이 아닌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 조화를 이루는 안도 다다오의 백미는 자연과 빛의 조화로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강조하여 흥미를 증가시키면서도 생태학적 측면까지도 고려하였다. 더불어 박누리(2013)는 지중미술관에 유유자적 있다 보면 보는 이들에게 보는



자유와 생각하는 자유 및 느낌을 제공하고, ‘보이는 것’ 너머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지중미술관만의 매력이라 언급하였다.

지중미술관의 전시 작가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로 세 명의 작품만 볼 수 있으며 작품은 9점만을 전시하였다. 세 명의 작가들은 빛을 주제로 한 작가로 지중미술관의 모습과 융합할 수 있는 작가로 선정하여 전시 관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

<사진 12> 지중미술관 조감도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사진 13> 지중(지추) 정원



클로드 모네 작품과 동일한 형식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④ 이에 프로젝트(Art House Project)

이에 프로젝트는 1997년 혼마라 지구의 주민이 주민센터를 기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오래된 마을이라 성터, 절, 신사, 낡고 버려진 빈집들을 예술작품으로 조성하여 다른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작가를 먼저 초청하여 해당하는 집에 맞도록 작품 구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프로젝트의 작품들은 특정한 장소 한곳에서만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마을 곳곳에 위치하여 도보에 걸으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곳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주변 미화 등에 신경 쓰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에프로젝트에는 카도야(Kadoya), 미나미테라(Minamidera), 고오진자(Go'o Shrine), 이시바시(Ishibashi), 고카이쇼(Gokaisho), 하이샤(Haisha)등이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 카도야(Kadoya)

카도야는 200년 된 낡은 집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원, 개조, 구성하여 집의 내부공간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미야지마 다츠오의 작품을 설치하여 폐허와 현대예술과의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의 끊임 없이 사람들의 기억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4> 카도야 외관 및 내부 작품



출처: 좌-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우-단행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



- 미나미테라(Minamidera)

기존의 이에 프로젝트는 현재 사용이 없는 낡은 공간을 재구성하여 현대 예술과 조화를 이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미나미테라는 기존과 달리 안도 다다오가 직접 설계하여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곳은 절이 있던 곳으로 주변의 신사와 사찰, 장소의 역사를 반영하여 설계하였고 제임스 터렐도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사진 15> 미나미테라 정면 및 입구



출처: 좌-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우-단행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

- 고오진자(Go'o Shrine)

고오진자는 섬에서의 씨족신¹¹⁾으로 소중히 모시는 신사로 현지 주민들이



허름하고 낡은 모습을 개선의 요청이 있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공간이다. 신을 모시는 장소이기에 일반적인 민가 재구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특정한 장소기에 전통 종교 미술에 대한 조형적 이해가 깊으며 건축에 대한 흥미, 일본 미술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스기모토 히로시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고오진자는 호왕신사의 개축과 맞추어 올라가는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유리계단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16> 고오진자 정면 및 석실



출처: 단행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

- 11) 씨족신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씨족 공동체의 수호신 또는 신, 정령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 이시바시(Ishibashi)

이시바시는 과거의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의 건물로 제염업으로 번성한 가문으로서 나오시마의 깊은 역사가 있는 가문의 건물이다. 이곳의 재구성은 센쥬 히로시의 일본화 작가에 의해 역사와 문화의 연결이 재구성되었다.

<사진 17> 이시바시 안뜰 및 작품

	
이시바시 안뜰	센쥬 히로시 <하늘의 뜰> 칸막이에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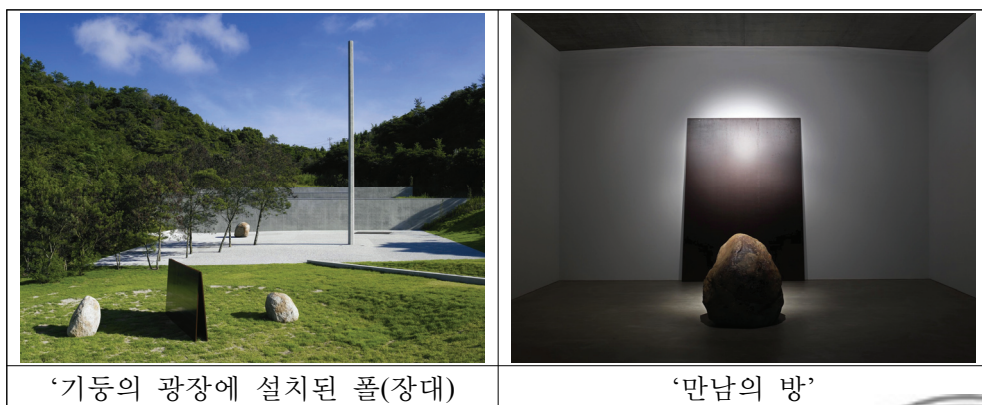
출처: 좌-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우-단행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



⑤ 이우환미술관

이우환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설계 아래 2010년에 개관하였다. 서양의 모습을 지닌 지추미술관과 다르게 이우환미술관은 아시아의 동양적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곳은 베네세하우스와 지추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의도적으로 약간만 보이도록 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윤지영, 변철(2014)는 이우환미술관을 나오시마의 경사진 언덕에서는 절제미와 동양의 선의 구도를 보여주고 안도 다다오에 의해 점차 잊혀가는 작은 나오시마 섬에 바다와 대지, 지중, 동서양의 예술을 모두 종합한 세계를 구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곳의 가장 상징적인 ‘기둥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10점의 평면 작품, 1점의 입체 작품이 있는 첫 번째의 ‘만남의 방’, 두 번째로는 산업사회의 소재 중 하나인 철판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조용하지만, 메아리가 울리는 역동적인 모습을 영상과 돌로 표현한 ‘침묵의 방’, 세 번째는 오직 벽화만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명상의 방’ 마지막으로 돌의 그림자에 영상을 설치하여 상영하는 ‘그림자의 방’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18> 이우환미술관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⑥ 아이러브유(I♥湯)

아이러브유는 대중목욕탕을 예술작품과 결합한 공간으로 일본의 목욕 문화와 현대 미술 작품이 잘 어우러지는 건물이다. 이곳은 오타케 신로가 작업한 곳으로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형태의 전시공간이며 외관에는 수많은 잡동사니가 건물 전체를 일정한 규칙 없이 장식하고 있다. 이곳은 설계한 오타케 신로는 섬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회화작품들은 모두 구상화로 선정하였다. 아이러브유가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섬 주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물건들을 활용하여 구성한 점에서 이곳의 목욕탕은 시작부터 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딱딱하고 차가운 미술관과는 달리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어 소통을 자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진 19> 아이러브유 외관 및 내부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

⑦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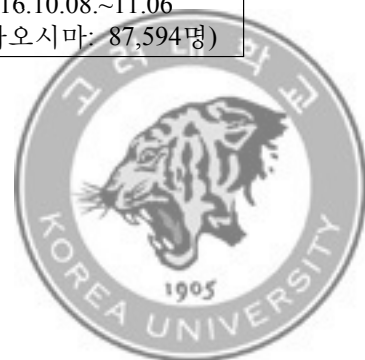
세토우지 국제예술제는 3년에 한번 열리는 현대예술 대전으로 봄, 여름, 가



을에 약 108일간 진행되며 나옴시마, 데시마, 메기시마, 오기시마, 쇼도시마, 오시마, 이누시마, 등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 나옴시마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큰 성과를 이뤄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나옴시마 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 공생하여 ‘희망의 바다’를 목표로 한다. 예술제는 2010년, 2013년, 2016년 총 3회 진행되었으며 9곳에서 18개국 75개의 예술가들이 개인 또는 단체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표 14>와 같이 제1회 예술제에서 제3회 예술제로 진행될수록 예산 규모와 프로젝트 장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6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의 예술제보다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예술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비율은 남성이 약 30%이며 여성은 약 70%로 나타났고 2차례 이상 예술제에 참여자는 67.8%, 첫 방문은 32.2%이다. 또한 수많은 방문객들 중 81.5%는 재방문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옴시마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 예술이 균형적인 융합을 이룬 성공적인 문화예술사례이다.

<표 14> 국제예술제 3회차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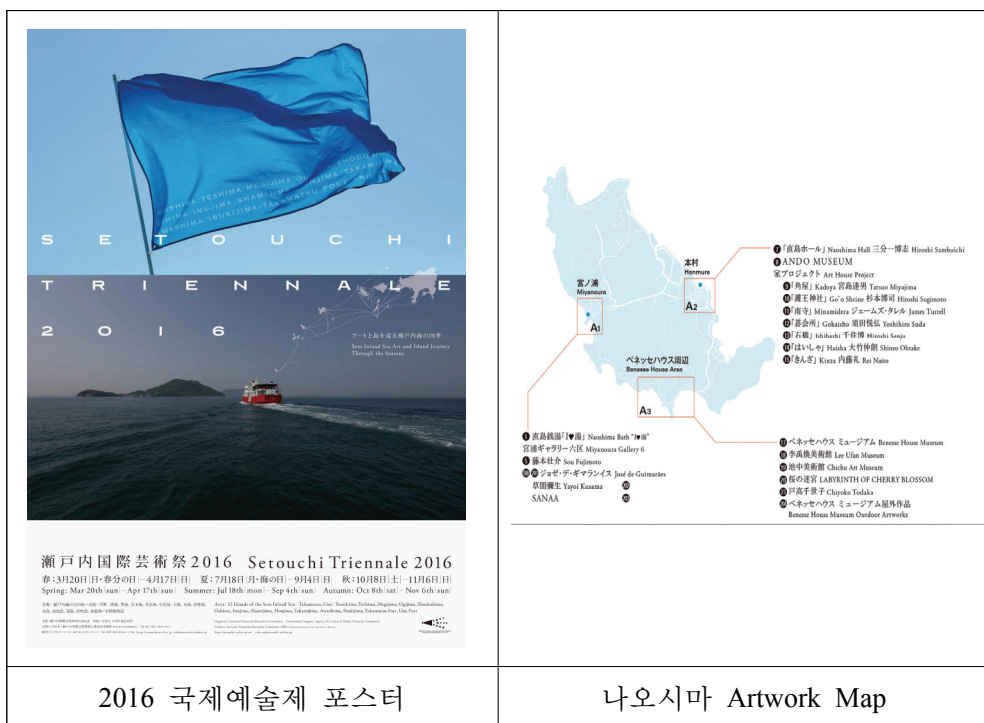
구분	제1회 국제예술제	제2회 국제예술제		제3회 국제예술제	
기간 (방문객 수)	총 105일	총 108일 (총 약107만명) -나옴시마 265,403명		총 108일 -나옴시마 257,586명	
	2010.07.19.~ 10.31 (약 93만 8천 명)	봄	2013.03.20.~04.21 (약 26만 3천명)	봄	2016.03.20.~04.17 (나옴시마: 61,097명)
		여름	2013.07.20.~09.01 (약 43만 5천명)	여름	2016.07.18.~09.04 (나옴시마: 108,895명)
		가을	2013.10.05.~11.04 (약 37만 2천명)	가을	2016.10.08.~11.06 (나옴시마: 87,594명)



예산규모	727만엔	1,015만엔	2,522엔
장소	나오시마, 데시 마, 메기시마, 오기시마, 쇼도 시마, 혼지마, 이누시마, 다카 마츠항 주변, 우노 항 주변 -9곳	나오시마, 데시마, 메 기시마, 오기시마, 쇼 도시마, 혼지마, 이누 시마, 다카마츠항 주 변, 우노 항 주변, 오 시마, 샤미시마, 타카 미시마, 아와시마 -13곳	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시 마, 오기시마, 쇼도시마, 혼지마, 이누시마, 다카마 츠항 주변, 우노 항 주변, 오시마, 샤미시마, 타카미 시마, 아와시마, 이부키시 마 -14곳

출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6 총괄보고서」

<그림 10>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포스터 및 Artwork Map



출처: Art Setouchi 홈페이지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 사례

(1) 스페인 빌바오

① 빌바오의 지역적 특성 및 성장 과정

빌바오는(Bilbao)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바스크 주의 수도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빌바오는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역사를 지닌 건축물과 산업자원들을 복원 및 활용하여 뛰어난 관광자원으로 성장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동시에 높아졌다. 또한 빌바오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의 목적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기에 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도시를 자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문화예술적 성장은 많은 도시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주정민, 서준교, 이효원(2005)에 따르면 문화는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이며, 그 영향은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빌바오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문화적 도시인 것이다.

빌바오는 바스크 주를 구성하는 세 지역 중 하나로 스페인 북부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공업 도시이다. 1980년의 빌바오에는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사라져가면서 도시의 실업률은 24%까지 치솟았다. 그 영향으로 도시 주민들이 빌바오를 떠나 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든 결과 마약유통과 각종 범죄가 급증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대홍수가 찾아와 도시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어 악순환이 지속되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폐허가 된 도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주해 오지 않았다. 결국 빌바오시에서는 대대적인 도



시개선을 위해 1985년 15명의 법률가와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재생협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공업적 측면에서의 개발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선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9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개선의 핵심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오스칼두나 회의장을 중심으로 문화벨트를 형성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빌바오의 도시재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 번째 문화를 통해 도시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변 15개의 중소도시들의 역할과 기능을 지역적, 주거지, 휴양지 등과 같이 체계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으며 다른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시설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이고 새로운 지역계획 수립이다. 빌바오의 ‘메트로폴리탄 빌바오 계획’은 도시재개발에 있어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보험, 하이테크 놀로지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 계획이 수많은 빌바오의 기본 도시계획인 ‘메트로폴리탄 가이드라인’, ‘메트로폴리탄 빌바오의 재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빌바오 리아 2000‘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사적 중심지의 재건에서 시작하여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신공항, 빌바오 항구 등 개발지역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국가적,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는 빌바오 메트로폴리-30으로 빌바오의 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다. 협회에서는 빌바오가 성공적으로 재개발되기 위해 활동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빌바오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와 소통을 나누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지역 주민의 소통에서 나아가 기업, 기관, 세계와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글로벌 정보 베이스를 탄생시켰



다. 궁극적으로 빌바오는 도시재개발을 위해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우수한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 위치한 포스트 모던의 해체주의¹²⁾ 건축으로 프랭크 게리에 의해 개관되었다. 프랭크 게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로 구겐하임 미술관은 모한 광채를 나타내는 티타늄 판을 외부 벽면에 수십만 개 부착하여 물고기 비늘과도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또한 티타늄, 유리, 석회암으로 구성된 방식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일감을 준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24,290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의 건축비를 들인 독창적인 건물이다. 중심축에서 동심원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크기를 지닌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미술관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전시장의 작품에 적절하고 균일한 조도를 유지하는 기능적 효과와 조명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밝고 편안한 느낌과 네르비온 강가를 포함한 주변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사진 20>은 빌바오의 역사적 배경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도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건축의 랜드마크

12) 해체주의는 탈구조화와 같은 의미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구축물(구조물, 건축물)을 모두 부숴야 한다는 철학적 믿음이다. 해체주의는 자크 데리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철학의 전반적인 토대가 된다. 해체주의를 반영한 건축의 외형적인 특징은 비대칭적이며 비리듬성,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반면 기능주의의 중심성, 통일성, 계층의 질서가 없다.



크로 선정되고 21세기의 건축의 조형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술관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빌바오시의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건물로 강변의 건축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있다.

<사진 20>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프랭크 게리의 해체주의 건축

출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홈페이지

③ 빌바오의 문화예술기관 및 축제

빌바오의 문화예술기관에는 대표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과 더불어 다양한 구분의 문화예술기관들과 독특한 축제들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기관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줌과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른 욕구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빌바오의 축제는 현대의 성장된 모습을 즐기면서도 전통문화를 잃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축제보다는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표 15> 빌바오의 문화예술기관 및 축제의 특징

문화예술기관	
구분	특징
빌바오 미술박물관	스페인의 가장 주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190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근대미술, 현대 미술, 바스크 미술, 응용미술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고, 민속, 역사 박물관	1604년 예수의 수도사들에 의해 세워진 곳으로 고전주의 형식으로 된 건축물이다. 바스크주의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석기시대의 유물의 생활사, 각종 장식, 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빌바오강 연안 박물관	박물관은 건조도크와 박물관 건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크는 1,2,3번의 세 부분의 구성과 박물관 본관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상설전시와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종교미술 교구 박물관	르네상스형식의 2층 건물 형태로 8세기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연대기적 순서로 의복 및 은제품, 종교그림,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다.
복제품 박물관	1927년 개관한 박물관으로 부속건물이 없는 단일형태의 구조로 유명한 유럽 박물관의 원본 조각품의 복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바스크 약학, 과학 역사박물관	보편적으로 약학 박물관이지만 국립과학기술분야까지 겹치고 있으며 수술실, 오래된 실험실 등 다양한 수집품이 있는 사물실로 구성되어 있다.
투우박물관	투우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그 당시의 투우사의 의상, 황소머리, 옛 포스터 등이 있다.
축제	



성 매리 마그달린의 날	베르메오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사로 문다카와의 싸움에서 자치권을 확보한 것을 기념하는 자체적 행사이다.
문다카 축제	‘재의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 축제는 바닷가 마을의 미속 신앙과 신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축제의 정점은 밤에 열리는 파티이다.
옥산디오의 바소 비스탁 축제	과거에 옥산디오 주민과 아라마이오 계곡 주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마르키나 세메인의 고행의 화요일 축제	귀신을 쫓고 어린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로 분장한 사람과 무희들이 포도주를 뿌리며 운반하는 축제이다.
성 아가타의 날	성 아가타의 전날인 2월 4일 저녁에 진행되는 행사로 비스카이 전역에서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막대기로 바닥을 두드리는 행사이다.
성 브라세의 날	2월 3일에 열리는 축제로 성인들에 대한 존경과 불운을 물리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마세다의 예수 의 수난 역할극	몇백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수난을 재연하는 것으로 성스러운 목요일 밤에 진행되어 금요일 9시가 되면 메인 이벤트가 시작된다.



V. 결론

1. 내용 요약 및 정리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사고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거대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 현대의 도시와 지역은 더욱 향상된 삶을 추구하여 최고의 발전전략으로 자연과 현대 문명 기술의 융합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균형적인 문화예술 성장을 위해 소외지역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 미술문화가 누릴 수 있는 공간 및 사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지역 재생은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예술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여 인지하지 못한 영역에 관심을 갖도록 의도하여 삶의 질을 강화시켜준다. 최초의 시작은 외부의 의도에 의해 관심이 시작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삶의 질 강화를 지향한다.

Ⅱ장에서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도시재생에 이바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오시마 프로젝트, 디아비콘, 발틱 현대 미술센터의 4곳을 선정하여 12개 영역이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지역의 가치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기업과 정책에 의한 설립, 지역 주민의 협조, 지역성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가치향상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높은 문화예술기관의 설립 및 프로젝트 등의 추진은 독자적 추진이 아닌 여러 기관과 주민의 협력적인 소통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의 문화예술탐구를 위해 기본적인 제주도 지역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문화예술시설을 국·공립과 사립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테마파크)를 나눠 현황 및 분포도를 III장에 작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곳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소외지역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동부지역은 구좌읍과 서부지역에서는 한림읍으로 두 지역의 해안가와 산간지역 부분으로 현장 조사하여 소외 실태를 언급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독자적인 자연미(美)와 예술미(美)를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여낸 제주 작가 2인 김영갑과 강요배의 작가관 및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IV장 사례 분석의 구성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활성화, ‘섬’의 미술문화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례로 구분하여 국외·내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활성화 사례에서는 여수 순천만 생태 관광지로 순천만의 생태를 기존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높은 생태 보존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두 번째는 ‘섬’의 미술문화 활성화 사례로 일본의 나오시마 섬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나오시마 섬은 섬 전체가 예술의 섬으로 매우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이며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를 받았던 지역이다. 나오시마는 기존의 산업폐기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자체와 기업, 주민의 협력 아래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의 섬이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례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과 국내의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먼저 스페인의 빌바오는 미술관 건물의 구성에서 독특한 재료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빌바오의 많은 축제와 조화를 이루어 성공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로 2009년에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하나의 지역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기간을 고정하여 진행



되지만, 이후의 작품은 영구 설치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효과적인 사례이다.

다양한 측면의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다양한 기업에서의 관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먼저 제주도 문화예술 소외지역이 소외된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성공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소외지역의 밀집된 상업적 공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절차와 정책에 의해서 가능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여겨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 필요로 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예산에 따른 진행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의 문화 예산의 범위는 부서별 상이하며 매년 변화하는 문화 예산으로 소외지역의 미술문화 활성화의 구체적인 확장 범위를 정하기에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이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술문화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은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예술가가 젠트리파이어¹³⁾의 역할

13) 젠트리파이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행위자로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축적, 자본에 중점을 주는 역할이며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자, 미디어가 이에 속한다.



을 하거나 해당 과정에 주요하게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시재생에 있어 주요 역할인 예술가는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여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여 준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문화기업가들에 의해 공급과 수요의 역할이 된다. 즉 예술가는 지역 문화재생에 개척자와 동시에 다양한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 등의 기업 등을 유도한다. 김연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재생이 상업화와 관광지의 영향으로 임대료의 급등으로 인해 예술가와 일부 문화기업가, 원래의 주민까지도 이탈하게 되며, 이렇게 이탈한 예술가들은 다시 유사한 여건의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순환 주체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도시재생을 무조건적인 긍정적 측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주민과 예술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소외지역의 미술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는 네트워크 협력망을 한라산 중심으로 구축하여 동, 서, 남, 북의 문화예술기관이 상호 소통하여 기획에 따른 전시 및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공립과 사립의 문화예술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시 및 교육 등과 융합하여 구성한다. 네트워크 협력망 구축은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축망으로 제주도가 예술의 섬이 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기관의 네트워크 협력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들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도 다양한 각도에서 협력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대·소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 협력망의 지속적인



교류와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관람은 대체로 밤에 보기 어려운 점이다. 일부 공간들에서는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이기에 밤에는 문화예술 즐길 요소가 부족하다. 밤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다르기에 해가 짧은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밤의 미술관, 박물관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주도의 낮과는 다른 밤의 크리에이티브 문화예술공간을 위해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서울 : 지식산업사.
- 최병식(2010). 「뉴 뮤지엄 탄생」. 동문선.
- 후쿠타케 소이치로, 안도다다오(2013). 「예술의 섬 나오시마」. 마로니에북스.
- 차현호(2017). 「나오시마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아트북스.
- 전용성, 황우섭, 염혜원(2010). 「나오시마 삼인삼색」. 웅진 리빙하우스
- 주정민, 서준교, 이효원(2005). 「문화도시의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 - 글래스고, 빌바오, 도크랜드」. 전남대학교 출판부.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마을미술프로젝트」. 2010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
- 이정록(2000).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푸른길.
- 김연진(2016).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종임(2007).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 운동」. 커뮤니케이션북스.
- 법률연구회(2017). 「도시재생의 이해」. 법률정보센터.

학술지

- 김태일(2009).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도연구 32집. 69-86.



- 이진영(2015).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미술관 클러스터 사례 연구 - 독일어권 도시의 미술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63-272.
- 이순자(2014).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과 과제 - 자원특성에 기반을 둔 섬지역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61-201.
- 김지혜(2015). 제주도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예술경영. 예술경영지원센터. 99-103.
- 백용성(2015). 제주도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Ⅱ. 예술경영. 예술경영지원센터. 104-109.
- 제주도 평화의 섬 실천협의회 문화예술분과(2009).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문화예술 -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 예술의 한 모형. 본질과 현상. 130-148.
- 강창숙(2010). 제주지역 박물관의 유형과 분포 특징.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9-36.
- 김정호, 김원태, 윤용한(2013). 도시지역의 녹지경관 조망이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생태학회. 27(4). 516-523.
- 강정효(2013). 문화탐방, 제주돌담. 제주발전포럼 45호. 제주연구원. 103-111.
- 이소연, 이명아(2013). 예술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의 가치향상을 위한 미술관 발전전략. 한국과학예술포럼. 195-207.
- 윤희향(2016). 나옴시마 프로젝트 중 베네세 하우스 공간에 나타난 장소특정성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62-78.



- 여운상(2009). 낙후된 작은 섬이 예술의 섬으로 나오시마. 부산발전포럼. 부산 발전연구원. 51-55.
- 윤지영, 변철(2014). 나오시마에서 나타난 해양지역 재생의 특성과 유기적 디자인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6.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49-259.
- 김상범, 노재현(2008). 제주 오름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관선호도 비교 평가. 동아시아 경관 연구.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1-12.
- 김석수(2010). 칸트에 있어서 자연미와 예술미. 철학논총 61. 새한철학회. 181-202.
- 이영욱(1992). 우리시대의 작가4 : 강요배, 비애 속의 서늘함. 월간 사회평론. 사회평론. 175-177.

학위 논문

- 이소연(2014). 지역문화와 미술관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량(2013). 지역 공립미술관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희(200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운영방안 - 제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동근(2012).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미국 네브레스카 주립 미술관 사례와 대전지역 미술관·박물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송(2010).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경호(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예술정책 연구 - ‘문화예술의 섬’ 정책의 분석과 제언.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2010). 영국 오픈 에어 뮤지엄(Open-Air Museum)과 프랑스 에코뮤지엄(Ecomuseum)의 특징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17). 문화예술지원과 지역사회적 가치창출 - 베네세의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www.je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마을미술프로젝트MAP www.maeulmisul.org
 나오시마 프로젝트 benesse-artsite.jp
 세토우지 국제예술제 setouchi-artfest.jp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www.dumoak.co.kr
 학교재갤러리 www.hakgojae.com
 순천만습지 www.suncheonbay.go.kr



Abstract

Ways to Invigorate Art Culture in Jeju Province; Focusing on Areas Isolated from Experiencing the Cultural Art

Hyeon Sik. Bang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Culture is organically intertwined with individuals, communities, society, location, and across the globe thereby coexisting with numerous people's lives within our modern world. We make balance and harmony in various spectrums through conscious and unconscious interactions. Here, cultur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take place while speaking to a friend, carrying out jobs at a workplace, or encountering a foreigner. Cultural growth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cultural values driven from individuals in a small scale, or from an agent greater than a society in a larger scale; however, the opportunity for growth must be fair across any space. Art museums, museums, theme parks, and galleries are the representative places where we can directly experience cultural growth. Cultural Art



Facilities are the spaces of interconnectedness where everyone can enjoy the fair opportunity for a cultural possession.

Humanity and nature, nature and humanity are cultural agents that necessarily grow together for mutual coexistence. The entire island of Jeju Province (Jeju-do or Jeju Island),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s a living representation of symbiosis and a massive cultural art space. Jeju City and Seogwipo of Jeju Province have been actively establishing Cultural Art Institutions and hosting various communities, festivals, and events in these facilities to drive growth in cultural art. Evidentl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Cultural Art Institutions are playing key roles in the local culture development and restoration - their roles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Moreover, case study and analysis of the local Cultural Art Institutions' efforts in increasing the city value through restoration reveal their importance by acknowledging the magnitude of influence in city restoration and inferring the core elements for invigoration of the local economy.

Despite the city restoration research and efforts made by numerous people across the peninsula, there are areas in Jeju under implicit cultural isolation. Isolated areas include Gujwa-eup in eastern Jeju and Hanlim-eup in western Jeju. Various forms of commercial scenes are rising in the two regions for their outstanding natural and artistic beauty. Introduction of commercial scenes have positive influence in the region's economic invigoration; however, findings from field studies and preceding research suggest that concentration of commercial scenes in the two regions prevent local habitants and tourists from experiencing the cultural art. In this structural



context, people have become blinded to the fundament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 experiences - Cultural Art Institutions in Gujwa-eup and Hanlim-eup is more important than ever.

Growing importance of a city's cultural art is globally recognized. Mixture of nature and cultural art is known to have therapeutic functions that aid healing and recovery of contemporary humans, which can be only experienced through cultural arts. Culturally advanced countries provide proven experiences for successful restoration of cities by recognizing the value of nature and cultural art. In assessment criteria of the case analysis, precedent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rt culture of 'Islands', and city restoration and vitalization have been used to apply towards various aspects in invigoration of art culture in isolated areas.

Cultural art spaces and commercial scenes in Gujwa-eup and Hanlim-eup, isolated from cultural art, interact to display unique natural and artistic beauty. The resulting setting enables the local inhabitants and tourists to independently recognize values through spontaneous cultural possession.

Key word: Areas isolated from cultural art, invigorating art culture, importance of cultural art, cultural possession.

